

##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지리산 여행 연구\*

정치영\*\*

### A Study on the Literati's Travels to Mt. Jiri in the Joseon Dynasty\*

Chi-Young Jung\*\*

**요약** : 이 연구는 조선시대에 저술된 유산기를 기초자료로, 당시 사람들이 지리산을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여행하였는지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한 조선시대 사람들의 금강산·청량산 여행과 비교하여, 지리산을 찾은 여행자의 성격, 여행 동기, 여정, 그리고 여행 방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리산 여행자들은 거주지, 성격, 취미 등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것이 반영되어 지리산 여행에는 금강산·청량산 여행과 구분되는 여행 동기와 여정이 나타났다. 여행 방식은 여행 시기, 준비물, 동반자, 교통수단, 식사 및 숙박, 여행 중 활동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금강산·청량산 여행과 큰 차이가 없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여행 방식 가운데 관행화된 것이 많았다는 증거이다.

**주요어** : 여행, 지리산, 사대부, 조선시대, 유산기

**Abstract** : This study analyzed people's travels to Mt. Jiri in the Joseon Dynasty; and more specifically, the purpose of such travels and the methods used to do so. Using previous studies dealing with travels to Mt. Kūmgang and Mt. Chungryang under taken by Joseon people, this study strived to extrapol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velers who visited Mt. Jiri, the motivation for their travels, the journey itself, and the style of travel employed. As a result of this exercise, those who traveled to Mt. Jiri were found to exhibit common characteristics in terms of aspects such as their area of residence, personalities, and hobbies. As these were naturally reflected in their travels, the motivation for such trips, as well as the journey to Mt. Jiri itself, tended to differ from those associated with travels to Mt. Kūmgang and Mt. Chungryang. As far as the style of travel was concerned, the study focused on such aspects as the length of the trip, preparations, nature of the companions, transportation, meals and accommodations, as well as the activities carried out during the travel itself. Here, the comparison with the travelers to Mt. Kūmgang and Mt. Chungryang reveal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Key Words** : travel, Mt. Jiri, literati, Joseon Dynasty, travel account of mountain

### 1. 서론

오늘날 여행은 일상적인 삶의 한 부분이 되었다. 사람들은 휴양, 출장 등 다양한 목적으로 여행을 한다.

이렇게 여행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공간 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여행이나 이와 관련된 관광이 다양한 공간적 현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리학에서는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특히 일상생활의 공간적 패턴을 분석하는 '행태지리학'이나 관광의 공간

\* 이 논문은 2008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물임.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cyjung38@aks.ac.kr

적 현상을 다루는 '관광지리학'에서 여행은 중요한 연구주제가 된다.

그런데 과거의 사람들도 여행을 떠났다. 과거의 여행은 오늘날의 여행보다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우가 많았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행이 인생에 있어 단 한 번뿐인 가장 소중한 체험이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늘날과 달리 여행을 위한 여행을 하였다. 오로지 여행을 하기 위해 산과 사막, 그리고 바다를 찾아가 낯선 풍경과 지역, 사람과 풍습 등을 체험한 것이다. 이러한 여행을 통해 사람들은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신의 내면을 풍부하게 하였다.

이러한 옛 사람들의 여행에 대해서도 최근 들어 여러 학문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과거의 여행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연구자들이 주목한 것은 여행과 관련 있는 시·소설·일기·여행기 등의 문학작품이었다. 이 중에서도 여행기는 과거의 여행을 분석하는 기초자료로 이용되어 왔다.

먼저 해외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일본의 지리학자들은 '도중일기(道中日記)'라는 기행문 자료를 이용하여 18~19세기 여행자들의 여행경로를 복원·분석하고, 여행자들의 행동과 그들이 가진 장소 이미지 등을 연구하고 있다(岩鼻通明, 1987; 小野寺淳, 1990; 田中智彦, 1987; 1988; 福田珠己, 1991). 서양의 지리학에서도 18~20세기에 식민지를 여행하고 기록한 유럽인들의 여행기(travel writing)를 통해 과거 특정지역의 사회현상을 분석하거나, 유럽인의 눈에 비친 식민지의 성격, 여행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장소 이미지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Duncan and Gregory, 1999; Guelke and Guelke, 2004; Foster, 2005). 최근 영국에서는 1500년대 이후에 발간된 여행기를 대상으로 지리학 뿐 아니라 역사학·인류학·문학 등의 학문분야가 결합하여 학제적 연구를 수행한 결과물이 발표되기도 하였다(Hulme and Youngs, 2002).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사람들의 여행을 다룬 연구들이 문학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유산시(遊山詩)나 유산기(遊山記)를 분석하여 당시 사대부들이 여행을 한 뒤 산을 어떻게 인식하고 문학적으로 형상

화하였는지를 고찰하는 연구가 많았다(강혜선, 1992; 홍성욱, 1999; 김동협, 2001; 조동일, 2006). 일부 연구자들은 유산기를 이용하여 당시 사람들의 여행 동기와 성향 등을 고찰하거나(이혜순 등, 1996; 최석기, 2000), 연행록(燕行錄)을 이용하여 여정 분석을 시도하기도 하였다(김태준, 2004). 상대적으로 역사학 분야에서는 여행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으나, 일기를 비롯하여 보다 다양한 문헌자료들을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노혜경, 2002; 강민구 등, 2007).

한편 서구와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지리학계에서는 아직까지 과거 사람들의 여행을 시공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드물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자는 조선시대 저술된 '금강산유산기(金剛山遊山記)'와 '청량산유산기(靑涼山遊山記)'를 자료로 사대부들의 금강산과 청량산 여행관행을 고찰한 바 있다(정치영, 2003b; 2005). 그 결과,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금강산과 청량산 여행은 유사한 면이 많으나, 여행자의 성격·여행 동기·여행 시기·여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는 이들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한 사대부들의 금강산·청량산 여행관행과 비교해,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가장 많이 찾았던 산 가운데 하나이며, 금강산·청량산과는 다른 특징을 지닌 지리산을 어떤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여행하였는지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 2. 연구방법 및 지리산 개관

### 1) 연구방법 및 자료

먼저 연구를 위해, 유산기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의 검토와 더불어 지리산을 대상으로 조선시대에 저술된 유산기를 수집하였다. 유산기는 조선시대를 통틀어 지속적으로 창작되어 현재 약 560편의 작품이 전해지는데(이혜순 등, 1996, 15), 그 중 지리산 유산기는 70여 편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sup> 그러나 유산기

는 대개 개인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어 이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족문화추진회에서 발간한 『한국문집총간(韓國文集叢刊)』, 지역별로 유산기를 모아 영인한 『한국역대산수유기취편(韓國歷代山水遊記聚編)』,<sup>2)</sup> 그리고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한국국학진흥원이 제작한 『조선시대유산기』 사이트를<sup>3)</sup> 통해 총 55편의 지리산 유산기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유산기들은 먼저 저자 및 시대별로 분류한 후, 내용을 개략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박민(朴敏)의 『두류산선유기(頭流山仙遊記)』, 허목(許穆)의 『지리산청학동기(智異山靑鶴洞記)』, 성해응(成海應)의 『지리산산수기(智異山山水記)』, 황현(黃玹)의 『유방장

산기(遊方丈山記)』 등과 같이 여정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내용이 빈약한 것은 연구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연구 자료로 선정된 유산기는 표 1과 같다. 모두 22편이며, 시기별로는 조선전기의 작품이 3편, 조선중기의 것이 10편, 조선후기의 작품이 9편이다. 자료로 사용한 유산기의 형식은 작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개 첫머리에 유람의 동기나 목적, 동행인을 기술한 다음 날자 별로 유람을 하면서 견문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 이를 분석하면 작가의 여행과정과 함께 여행지역의 당시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의 상세함과 그

표 1. 연구자료로 사용한 지리산 유산기 목록

번호	제목	저자	저작연대	출전
1	遊頭流錄	金宗直	1472년	佔畢齋集 卷2
2	智異山日課	南孝溫	1487년	秋江集 卷6
3	頭流紀行錄	金駟孫	1489년	濯纓集 卷5
4	遊頭流錄	曹植	1558년	南冥集 卷2, 錄
5	遊頭流錄	邊士貞	1580년	桃灘集 卷1
6	頭流山紀行錄	梁大樸	1586년	靑溪集 卷4
7	頭流山日錄	朴汝樑	1610년	感樹齋文集 卷6
8	遊頭流山錄	柳夢寅	1611년	於于集 後集 卷6
9	方丈山仙遊日記	成汝信	1616년	浮查集 卷5
10	遊頭流山錄	趙緯韓	1618년	玄谷集 卷14, 錄
11	歷盡沿海郡縣仍入頭流賞雙溪神興紀行錄	梁慶遇	1618년	霽湖集 卷 11
12	遊頭流山記	朴長遠	1641년	久堂集 卷15
13	遊頭流山記	金之白	1655년	澹虛齋集 卷5
14	頭流錄	鄭弼	1724년	明庵集 卷4
15	南游記	金道洙	1727년	春洲遺稿 卷2
16	遊天王峯記	柳汝龍	1775년	槐泉先生文集 卷 3
17	方丈遊錄	李東沆	1790년	遲庵文集 卷3, 雜著
18	遊頭流錄	河益範	1807년	士農窩集 卷2
19	頭流錄	朴致靛	1860-93년(?)	晚醒先生文集 卷9
20	頭流山記	宋秉璫	1879년	淵齋集 卷21
21	智異山遊賞錄	金會錫	1902년	愚川文集 卷4
22	遊頭流錄	裴聖鎬	1910년	錦石文集 卷5

에 따른 전체 분량은 작품에 따라 편차가 크다.

연구자료로 선별된 유산기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하게 내용을 분석하며, 유산기의 저자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였다. 저자에 대한 검토는 저자의 출신 성분, 거주지, 사상적 배경, 교유관계 등에 집중하여, 지리산 여행의 동기, 동반자와의 관계, 주요 방문지점과 여행 중 방문인사에 대한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유산기의 내용분석에서는 여행 시기, 기간, 동반자, 경로, 숙박지, 교통수단, 주요 방문지점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 2) 지리산 개관

조선시대 사람들의 여행의 대상이 된 지리산은 현재 행정구역으로 전라북도 남원시, 전라남도 구례군, 경상남도 함양군·산청군·하동군 등 3개 도, 5개 시·군에 걸쳐있는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대표하는 커다란 산이다. 지리산은 최고봉인 천왕봉(1,915m)을 동쪽 기점으로 하여, 주능선이 동서 방향으로 제석봉(1,806m)·영신봉(1,651m)·명선봉(1,586m)·삼도봉(1,434m) 등 1,500m대의 준봉들을 거쳐 노고단(1,507m)까지 약 45km에 걸쳐 이어져 있다. 주능선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으로는 15개 이상의 능선이 뻗어 있는데, 능선 사이에는 20여 개 이상의 크고 작은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어 일찍부터 농경지와 촌락의 터로 이용되어 왔다. 이 골짜기들은 매우 깊어 대부분 그 길이가 10km를 넘으며, 해발 700~800m의 고도까지는 경사가 완만하다가 그 이상의 고도부터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특히 해발 300~700m 부분에는 완경사면이 집중적으로 나타나 조선후기 이후 농경지가 개간되고 마을이 들어섰다. 삼림이 울창한 거대한 산지를 수원으로 하는 지리산의 계류는 물이 차고 맑으며, 수량이 풍부하다. 또한 물과 암석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한다(정치영, 2006, 23-29).

지리산은 형성시기가 오래된 편마암 위주의 변성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지질은 지리산을 토산(土山)으로 만들었다. 여기저기 노출된 암석들로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화강암산지, 즉 석산(石山)과 달리, 토산은 장구한 시간동안 침식과 퇴적 작용으로 암석의

노출이 드물고 기복이 적어 전체적으로 산세가 부드러우며, 토심(土深)이 깊어 삼림이 무성한 산이다. 지리산의 기후는 주변 평지에 비해 기온이 낮고 일교차가 심하며, 강수량과 구름량이 많고, 바람도 강하며 고도에 따라 변화가 심한 것이 특징이다. 지리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다우 지역으로, 특히 지리산 산정부에서 남해안에 이르는 지역은 최다 강수 지역인 동시에 호우가 가장 빈번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고도에 따른 기후의 차이로, 고도에 따라 각기 다른 식생대가 분포하고 있다.

지리산은 옛날부터 불교에서 지혜의 보살인 문수보살의 도량으로 간주되었으며, 삼신산(三神山) 가운데 하나인 방장산(方丈山)이라 일컬어져 왔다. 또한 지리산은 고대국가가 형성되면서부터 산신 신앙의 대상이 되었고, 나라에서는 지리산에서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 국가와 백성의 행복을 빌었다. 민족의 성산으로서의 지리산의 위치는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면면히 이어져왔다.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 지리산에는 많은 사찰들이 들어섰고, 나중에는 그 숫자가 수백 개에 이르는 불교의 요람이 되었다. 지리산은 우리나라 무속 신앙의 발원지로도 알려져 있다. 그래서 예로부터 많은 무속인의 기도처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조선 전기까지 지리산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은 곳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순례와 유람을 위해 지리산을 찾는 사람들은 적지 않았으나, 상주하는 사람들은 나무꾼과 사냥꾼, 그리고 승려와 무당 등 특수한 계층이었다.

지리산이 삶의 터전으로 중요시된 것은 임진왜란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지리산은 왜군과의 격전장이었던 경상도와 전라도의 접경에 위치하며, 남부 지방에서 산의 규모가 가장 크고 골짜기가 깊어 숨을 만한 곳이 널려 있어 많은 피난민들이 몰려들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지리산으로 찾아드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특히, 17세기 이후 18~19세기에 걸쳐 경상도·전라도 등 인근의 평지에서 전쟁, 기근과 전염병, 가중되는 각종 부세와 역의 부담, 사회적 혼란 등을 피해 많은 농민이 지리산으로 이주하였다. 여기에는 당시 지리산이 '청학동(靑鶴洞)'이 존재하는 도가(道家)의 이상향인 동시에, 『정감록』 등 각종 비결류(秘訣類)에 피병(避

兵)·피세지(避世地)로 언급되어 병화나 흉년을 당하지 않고 오래도록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품과 같은 지리산의 역할은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도 계속되었다. 지리산은 토지로부터 축출되어 기근에 시달리는 농민, 일제의 탄압을 피해 은거한 독립운동가, 사회적 혼란을 두려워한 비결류 신봉자 등 다양한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었다(정치영, 2006, 42-65).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리산 곳곳에는 많은 문화유적이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불교 문화재들이다. 많은 사찰이 전쟁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사라졌지만, 곳곳에 화엄사·연곡사·쌍계사·대원사·실상사 등 유서 깊은 고찰이 있다. 지리산은 전체적으로 아기가자기한 멋은 부족하지만 중후하고 인자한 모습을 지닌 산이다. 이러한 풍부한 문화유산과 지리산 나름의 산악미 때문에 조선시대부터 많은 여행자들이 찾았으며, 1967년에는 국립공원 제1호로 지정되었다.

지리산의 명승지로는 천왕봉·반야봉·노고단 등의 3대 주봉과 함께, 피아골과 뱀사골·화엄사계곡 등의 골짜기, 그리고 불일폭포·구룡폭포·칠선폭포 등과 같은 폭포를 들 수 있다. 예로부터 지리산 10경으로는 노고운해(老姑雲海), 피아골단풍, 반야낙조(般若落照), 섬진청류(蟾津清流), 벽소명월(碧沼明月), 불일폭포, 세석철쭉, 연하선경(烟霞仙景), 천왕일출(天王日出), 칠선계곡이 꼽힌다.

### 3. 지리산 여행자의 성격과 여행 동기

#### 1) 지리산 여행자의 성격

본 연구의 대상이 된 22편의 유산기 저자들의 신상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먼저 조선시대 지리산을 유람한 여행자들은 모두 사대부계층이었다. 유산기를 남긴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데에도 원인이 있으나, 당시 유람을 위한 장거리여행은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

다(정치영, 2003b, 19).

여행자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여행 당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두 명을 제외한 20명 중 지리산이 걸쳐 있는 전라도 남원에 거주하던 사람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역시 지리산에 이웃한 경상도 함양에 살던 사람이 3명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으며, 역시 인접한 단성<sup>4)</sup>에 살던 사람이 2명이었다. 경상도 진주, 안음,<sup>5)</sup> 삼가,<sup>6)</sup> 거창도 지리산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충청도 회덕에 거주하던 송병선이 가장 먼 곳에서 왔으며, 경상도 청도와 칠곡에서 온 김일손과 이동항도 상당히 먼 곳에서 지리산을 찾았다. 충청도 회덕, 전라도 남원을 제외하면, 모두 경상도에 거주하던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여행 당시의 연령은 50대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6명, 20대가 3명, 30대가 3명이었으며, 60대와 70대에 지리산을 찾은 사람이 각각 1명이었다.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금강산 여행자와 유사하다. 한편 공부를 위해 산을 찾은 사람이 많았던 청량산은 20·30대의 젊은 여행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정치영, 2005, 58).

조선시대 지리산 여행자 가운데 여행 당시 현직관료였던 사람은 4명에 불과하다. 각각 함양·남원·장성·안음의 수령이었던 김종직·유몽인·양경우·박장원이다. 김종직·유몽인·박장원은 모두 지리산 인근의 군현에 근무하면서 지리산을 유람하였으며, 양경우는 남원 출신이나 장성현감으로 근무하면서 공무를 겸해 지리산을 찾았다.<sup>7)</sup> 이들 외에 본 연구에서 다룬 18명 중에 관직을 역임한 사람은 김일손·양대박 등 5명이다. 이 가운데 김일손은 관직에 나가기 전인 20대에 지리산에 올랐으며, 양대박·박여량·조위한·김도수 등은 관직에서 물러나 쉬는 동안에 지리산을 여행하였다. 예를 들어 김도수는 금산군수를 그만둔 직후 지리산·가야산·속리산을 경유하는 긴 여행길에 나섰다.

22명의 지리산 여행자 가운데 남효온을 비롯한 13명은 일생 동안 관직과 거리를 둔 사람이었다. 남효온·조식과 같이 어지러운 정치 현실에 환멸을 느끼고 관직에 나가기 기피한 사람이 있고, 이동항과 같이 과

표 2. 지리산 여행자들의 특성

번호	성명	생몰년도	연령*	거주지*	관직*	사승관계 및 주요경력
1	金宗直	1431-1492	42	경상 함양	함양군수	선산부사 · 이조참판 역임, 영남사림의 영수
2	南孝溫	1454-1492	34	?	-	金宗直의 문인, 生六臣의 한 사람, 관직에 나가지 않음
3	金駟孫	1464-1498	26	경상 청도	-	金宗直의 문인, 홍문관 교리 역임, 무오사화로 처형됨
4	曹植	1501-1572	58	경상 삼가	-	관직에 나가지 않고 鄭述 · 鄭弘 등 많은 제자를 양성
5	邊士貞	1529-1596	52	전라 남원	-	임진왜란 때 의병장, 남원을 중심으로 활동
6	梁大樸	1544-1592	43	전라 남원	-	임진왜란 때 의병장, 전쟁 중에 과로로 사망
7	朴汝樸	1554-1611	57	경상 함양	-	사간원 정언 등 역임, 임진왜란 때 의병을 지원
8	柳夢寅	1559-1623	53	전라 남원	남원부사	도승지 · 대사간 등 역임, 인조반정 후 무고로 처형됨
9	成汝信	1546-1632	71	경상 진주	-	曹植의 문인, 임진왜란 때 김덕령을 도움
10	趙緯韓	1567-1649	52	전라 남원	-	임진왜란 때 김덕령을 따라 종군, 집의 · 양양군수 역임
11	梁慶遇	1568-?	51	전라 장성	장성현감	양대박의 아들, 張顯光의 문인, 죽산 · 장성현감 역임
12	朴長遠	1612-1671	30	경상 안음	안음현감	1653년 홍해에 유배, 상주목사, 이조 · 예조판서 역임
13	金之白	1623-1671	33	전라 남원	-	金集의 문인, 관직에 나가지 않고 학문에 전념
14	鄭弼	1683-1746	42	경상 산청	-	관직에 나가지 않고 덕산에 은거하여 삶
15	金道洙	1699-1733	29	?	-	금산군수 역임, 신분과 당색을 가리지 않는 교유관계
16	柳汝龍	1753-1821	23	경상 단성	-	柳增瑞의 문인, 관직에 나가지 않고 학문에 전념
17	李東沆	1736-1804	55	경상 칠곡	-	崔興遠의 문인, 관직에 나가지 않음
18	河益範	1767-1813	41	경상 단성	-	宋煥箕의 문인, 관직에 나가지 않고 학문에 전념
19	朴致馥	1824-1894	미상	경상 삼가	-	柳致明의 문인, 관직에 나가지 않고 제자를 양성
20	宋秉璿	1836-1905	44	충청 회덕	-	宋時烈的 9대손, 을사조약에 반대하여 자결
21	金會錫	1856-1932	47	경상 거창	-	宋秉珣과 교유관계, 같이 지리산에 오름
22	裴聖鎬	1851-1929	60	경상 함양	-	許傳의 문인

\* 지리산을 여행할 당시의 연령, 거주지, 관직이다.

자료: 한국문집총간, 최석기 등(2000) 등의 문헌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 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100.nate.com/minbaek>) 등을 이용, 필자가 작성

거에 여러 번 실패한 경우도 있으며(최강현, 1996, 513), 하익범과 같이 고향을 지키며 가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긴 사람도 있었다(최석기, 2008, 159). 이들의 생애를 살펴보면, 관직에 나가지 않았지만 국가의 중대사에는 상소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으며,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의병활동을 펼치는 등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지리산 여행자들의 사승관계를 살펴보면, 조선 전기에 지리산을 찾은 남효온과 김일손은 모두 앞서 지리산을 여행한 김종직의 제자였다. 김종직은 영남사림의

대표적인 인물로, 그의 지리산 여행은 후대에 지리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조선중기 들어 조식이 지리산에 오른 후에는 제자인 성여신을 비롯해 그를 흠모하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예를 들어 박여량은 조식의 제자인 정인홍에게 수학한 사람이었다. 한편 정식 · 이동항 · 박치복은 사승관계로 보아 이항의 학문을 이어받은 영남학파에 속하는 인물들이었다. 조선후기에 지리산을 찾은 사람 가운데는 이이의 학문을 계승한 기호학파로 분류되는 이도 적지 않았다. 김집의 문인인 김지백을 시작으로, 송시열의 5대

손인 송환기의 문인인 하익범, 송시열의 9대손인 송병선, 송병선의 동생인 송병순과 친했던 김희석 등이 그들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지리산 여행자들은 연령대, 경력, 사승관계 등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유사한 성격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앞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여행자가 지리산 인근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이다. 평소 지리산을 가까이 보면서 친숙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지리산을 찾았다. 예를 들어 박치복은 “내가 거주하는 곳이 이 산과 거리가 백 리가 되지 않아 평소 생활하면서 마주 대하는데도 세상 일 때문에 찾지 못했다”고 『두류록(頭流錄)』의 서두에 밝히고 있다. 반면에 지리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이들에게는 지리산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당시의 교통사정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장거리 여행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특히 사대부들이 많이 거주하던 서울과의 교통조건은 경흥로(慶興路)라는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대로로 곧바로 연결되던 금강산의 그것에 비해 상당히 열악하였다.

둘째, 지리산을 올랐던 사람들은 대부분 관직에 관계없이 지조와 절개를 지닌 인물이었다.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강직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에 얽혀 귀양을 가거나 처형되기도 하였고, 임진왜란 때는 의병을 일으켜 싸우다 순직하기도 하였다. 특히 임진왜란 때 의병활동을 하거나 도운 사람이 양대박·박여량·성여신·조위한·양경우 등 5명이나 되었다. 금강산 여행자들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는데(정치영, 2003b, 20), 이러한 경향성은 여행의 동기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리산은 남부지방에서 가장 높고 큰 산이었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호연지기를 길러 선비로서의 지조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많이 찾았다.

셋째, 많은 여행자들이 산수를 유람하는 것을 취미로 가지고 있었다. 지리산 여행자가 가운데 다른 지역에 대한 여행기를 남기거나, 지리산유산기에 자신이 산을 오른 경험을 기록한 이가 많다. 조선전기의 남효온은 금강산과 송도를 여행한 기록을 남겼으며, 조선중기의 유몽인은 『유두류산록(遊頭流山錄)』 말미에 그 동안 오

른 삼각산·청계산·성거산·설악산·금강산·묘향산 등 10여 곳의 산을 열거하였다. 조선후기의 정식·김도수·하익범 등도 여러 산을 유람하였다. 송병선은 지리산 뿐 아니라 청량산·금오산·무등산·가야산·덕유산·백암산·선운산·수도산 등의 유산기도 남겼다. 이러한 여행자들은 순례하듯이 평생 동안 명산을 여행하였다.

## 2) 지리산 여행의 동기

지리산 여행자 가운데는 유산기 서두에 여행 동기를 밝힌 사람이 적지 않다. 이들은 대부분 지리산 유람을 평생의 소원으로 간직하고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유몽인·김지백·이동항 등은 “지리산 유람이 오랜 숙원”이라고 했으며, 변사정과 송병선은 “목은 빛을 갠 기분”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이 이토록 지리산을 유람하고 싶었던 이유는 박장원의 『유두류산기(遊頭流山記)』 서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맑고 청명한 기운과 영험한 자취, 웅장한 모습, 그리고 넉넉한 볼거리는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라고 지리산의 매력력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리산이 삼신산의 하나인 방장산으로 중국 문헌에도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당시 사대부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조위한은 중국인도 찾고 싶어 하는 이 산을 이 나라 사람이 보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였으며, 유몽인도 두보(杜甫)의 시에 언급된 방장산을 우리는 쉽게 구경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지리산 유람의 보다 구체적인 동기를 살펴보면, 먼저 지리산의 웅장한 모습을 감상하고,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기회로 삼기 위함이었다. 조선전기에 지리산을 올랐던 김종직은 “보름날 밤에 천왕봉에서 달을 구경하고, 새벽에 해돋이를 하며, 아침에 사방을 두루 조망하기 위해서”라고 여행 동기를 적었다. 또한 공자(孔子)가 태산(泰山)을 오른 것과 한유(韓愈)가 형산(衡山)을 유람한 것을 흠모하여 이를 따르고자 한다고도 하였다.<sup>5)</sup> 금강산에 비해 계곡이나 바위 등의 아기자기한 볼거리가 덜한 지리산은 정상인 천왕봉에 올라 사방을 조망하면서 공자의 “등태산소천하(登泰山小天下)”<sup>6)</sup>의 식을 체험하고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 산을 찾는 사

람이 많았다. 공자의 일화나 『논어(論語)』의 “지자요수(知者樂水) 인자요산(仁者樂山)”이라는 구절이 많은 유산기에 언급된 것도 이러한 유람 동기 때문이었다.

특히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산을 수기(修己)와 존양(存養)의 장소라고 생각하였다. 한 발 한 발 어렵게 산을 오르는 것 자체가 공부이자 수양이라고 여겼으며, 명산의 경관은 유학의 이치를 습득하게 하는 텍스트라고 간주하였다. 이에 대해 박여량은 여러 번의 지리산 유산 경험을 언급하며, “산을 유람하는 것은 글을 읽는 것과 동일하다”고 피력하고 있다. 즉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유산이 경전을 읽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며,<sup>10)</sup> 유산을 통해 철학적 사유를 넓혀나가고 산이 지닌 덕과 이치를 배우려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이와 같은 동기로 지리산을 찾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하익범이 『유두류록(遊頭流錄)』 말미에 “단지 기이한 경치만 감상하는 데 그치고, 동정(動靜)의 이치를 터득하여 나의 어질과 지혜의 즐거움을 얻지 못했다면, 어찌 부끄럽고 두려워할 만한 일이 아닌가”라고 쓴 것은 지리산 여행이 공부의 수단이었음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다.

유람의 두 번째 동기로는 지리산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곳곳에 남아 있는 선인들의 발자취를 찾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지리산에는 무속신앙과 불교와 관련된 많은 유적과 전설이 남아 있는데, 그 현장을 체험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았다. 또한 지리산에 존재한다는 이상향인 ‘청학동’을 직접 탐색하려는 사람도 많아 대부분의 유산기에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sup>11)</sup>

김종직·남효온·김일손·조식 등 조선전기의 여행자부터 조선후기의 송병선에 이르기까지 유람을 통해 ‘청학동’의 위치를 추정하였으며, 청학동 탐색이 이들의 중요한 여행 동기 가운데 하나였다. 지리산에 그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 적지 않지만, 후대의 사람들이 그 흔적을 특별히 찾아보고 싶어 하는 이들은 최치원(崔致遠)·한유한(韓惟漢)·김종직·김일손·정여창(鄭汝昌)·조식 등이었다. 최치원·한유한·정여창·조식 등은 지리산에 은거한 사람들로, 이들이 거주했던 흔적을 찾아보려는 이가 많았다. 김종직·김일손은 영남사람의 큰 스승으로써 존경을 받았으며, 이른 시기에 지리산을 유람하여 유산기를 남기기도 하였다. 따라서 후대에 지리산을 찾은 사람들은 이들의 유산기를

안내서 삼아 이들의 자취가 남아있는 장소를 방문하려고 하였다. 변사정은 『유두류록(遊頭流錄)』 서두에 “뛰어난 선배들의 유산을 몸소 경험해 보고 싶다”고 써서 이러한 여행 동기를 표현하였으며, 김지백은 특히 최치원의 자취를 추적하고 싶어 여행에 나섰다.

유람의 또 다른 동기로는 현실 세계의 어려움이나 모순을 잊으려는 노력을 꼽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리산 여행자 가운데는 어지러운 정치 현실에 환멸을 느끼거나 집권층과 당색이 달라 권력에서 소외된 이들이 적지 않았다. 이들에게 있어 지리산 유람은 현실에서의 갈등을 해소하고 마음을 정화하는 수단이었다. 특히 16세기 후반 들어 사림정치가 다시 시작되고, 사림이 분열되어 권력의 부침이 심해지면서 지리산을 찾는 발길들이 많아졌다. 예를 들어 양대박은 남원에 살면서 울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유람을 하였고, 조위한 역시 옥사에 연루되어 남원에 우거하고 있을 때 지리산을 찾았다(최석기 등, 2000, 388). 양대박은 “산수가 빼어난 곳에서 가슴 속의 티끌을 씻고 세속의 근심을 없애고” 싶어서, 조위한은 “자연을 느끼고 마음을 씻어내기” 위하여, 하익범은 “평생토록 쌓인 세속의 찌든 때를 씻어내기 위해” 유람에 나선다고 각각 그 동기를 밝히고 있다.

남다른 동기로 지리산을 찾은 예로는 조식을 들 수 있다. 그는 12번째로 지리산을 유람하고 쓴 『유두류록(遊頭流錄)』에 이렇게 많이 산을 오간 이유를 “어찌 산수만을 탐하여 왕래한 것이라면 번거로운 산행을 꺼리지 않았겠는가? 평생 동안 품은 계획인 화산의 한 모퉁이를 빌어 일생을 마칠 곳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여, 은거할 장소를 탐색하기 위해 지리산을 여러 번 찾았음을 밝히고 있다. 조식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지리산을 찾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 중에는 “몇 년 전에 두 번째로 이 산에 들어갔으나 바쁘게 돌아다니느라 마치 문에는 들어갔으나 그 방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 같은 여행을 하였다”고 언급한 배성호와 같이 지리산이 워낙 규모가 큰 산이어서 곳곳을 빠짐없이 구경하기 위해 다시 지리산을 찾는 경우가 많았다.



### 4. 지리산 여행의 여정

경로(왕로: 往路), 지리산 내에서의 경로, 산에서 출발지로 돌아오는 경로(귀로: 歸路)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서울에서 출발한 여행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한 금강산 여행의 왕로와, 산에 바로 이웃한 안동·예안 등지의 거주자가 대부분을 차지한 청량산 여행의 왕로는 단순하였다. 금강산 여행은 서울에서 금강산까지의

#### 1) 왕로와 귀로의 여정

유산의 여정은 출발지에서 목적지인 지리산까지의

표 3. 출발지에서 지리산까지의 여정

여행자	기간(일)	여행경로
남효은	1	여사등촌(진주)-단속사-조연-불령-백운동-덕천 상류-양당촌-덕산사
김일손	5	함양-제한역-동구사-금대암-용유담-탄촌-암천사-사근역-산음현 읍치-환아정-단성-단속사(2)-치원당
조식	6	계부당(삼가)-진주-마현(3)-사천-장암 쾌재정-배에서 잠-사천만-곤양 앞바다-섬진-악양현-삽암-도탄-정여창 구거지-화개동
양대박	3	청계(남원)-영원-운봉현-황산비전-인월역-이화정-옹담수-백장사-변사정 옛집-실상사-두모담-군자사
박여량	2	도천(함양)-어은정-목동-용유담
유몽인	3	목동(남원)-요천-반암-황산비전-백장사-황계 하류-영대촌-흑담-환희령-내원-정룡암-월락동-황혼동-외곡-갈월령-영원암
성여신	7	금산(진주)-사천-가방-김호-이천-정촌-관울제방-구암-강주-진현-수곡-송림-봉계-맥동촌-황현-횡포-공돌원-계동-홍릉-군산-삽암-도탄-가정-화개동
조위한	3	남원-쌍계-중주원-순자강-수운정-곡성-압록진-구례현-석주협-화개동
양경우	25	장성-남평현-남계-남평현-영암군-도갑사(3)-영암 백선명가-해남 이모덕(3)-벽파정-진도군-망덕봉-진도군-벽파정-해남 이모덕-강진현-장흥부-보성군-해창-홍양현(2)-낙안군-순천부-순천 환선정-광양현-익양-화개동
박장원	3	안음-일두서원-사근역-함허정-함양-용유담
정식	4	금운창-화장암-입덕문-남명서원-보문암-진주담-벽송암 옛터
김도수	3	담양부-순창군-중주원-순자강-곡성현-압록원-압록진-구례현-화엄사
이동항	20	성주 유촌-모고재-회연(3)-합천 홍류동-해인사 학사대-염불암-백련암-마정-마령-정은 묘소-거창 학동-살피계-석간정-살목-심소정-영송촌-진동암-서말촌-거차촌-척수대-황산촌-수송대-강선대-모리-치내-지암-상천촌-고연-천석문-갈천서당-송대-내순암-월성촌-송대-수망령-용추암-장수사-심유암-함양읍치-광풍루-성북-월연-화림동-개평(3)-뇌계-엄천창-함허정-엄천사-용유담
하익범	2	두양곡-사자령-입덕문-남명선생 묘소-덕천서원-세심정-동당촌
박치복	5	섬계-진태-남사(2)-도구대-탁영암-산천재-남명선생신도비-덕천-장항령-대원사
김희석	16	거창 창촌-장평-도마현-한출현-장교-산포촌-포총사-양사당-개화리-교촌-침류정-관아-취수정-고현암-용당-병산-산천재-정은 묘소-용천정사-구일재-마령-용소-해인사-농산정-용령-영귀정-산제령-모현정-하평촌-기동-합천 상현-상산병사-금봉-병목(2)-황매산-소촌-산청-산청관아-환아정-울령-진주 황계서숙-대원암-덕산 저자-산천재-조식묘소-산천재-세심정-중산동
배성호	4	마탄-장항-극정-목동(2)-함양 진관-매촌-숙계치-도정촌-비령-법화암-백련촌-고정-용유담

\* 굵은 글씨는 숙박한 곳이며, 같은 장소에 여러 날을 숙박한 경우 ( )안의 숫자로 표시하였다.  
 자료: 유산기를 분석하여 필자가 작성

최단코스인 '경흥로(慶興路)'를<sup>12)</sup> 주로 이용하였고, 청량산 여행은 낙동강을 따라 이어지는 가장 편하고 빠른 길을 이용하였다(정치영, 2003b, 21-23; 2005, 60-61). 이렇게 왕로가 단순한 데에는 금강산과 청량산 내 여행의 출발점이 대개 장안사(長安寺)와<sup>13)</sup> 연대사(蓮臺寺)로<sup>14)</sup> 수렴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리산 여행자의 왕로는 여행자에 따라 차이가 많았다. 표 3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22명의 여행자에게 비교적 상세하게 왕로를 기록한 이들의 여행경로를 정리한 것이다. 출발지가 대개 지리산 인근 지역이긴 하나, 산의 서부인 남원, 동부의 진주·산청, 북부의 함양·안음 등으로 다양한 데다 지리산 내의 여행 출발지점도 용유담·군자사·화개동·화읍사·대원사·오대사 등으로 일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왕로에 소요된 여행기간도 여행자에 따라 편차가 심하였다. 지리산에서 가까운 곳에서 출발한 여행자들은 1~3일 만에 지리산에 도착하였고, 공무를 위해 전라도의 여러 고을을 거쳐 여행한 양경우는 무려 25일이 소요되었다. 중간경유지에서 2~3일을 체류하는 사례도 발견되는데, 대개 비를 만나서 머무는 경우가 많았으며, 몸이 좋지 않아 쉬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김일손이 단속사에 이틀을 머문 것은 같이 여행 온 친구가 발이 부르터 걸을 수 없었기 때문이며, 양경우가 도갑사에 3일을 체류한 것도 다리에 종기가 났기 때문이다.

지리산에 도착하기 전에 왕로 상에서 많이 들르는 경유지로는, 남원에서 출발한 여행자들은 황산비전(荒山碑殿)과<sup>15)</sup> 백장사(百丈寺)를<sup>16)</sup> 많이 구경하였다. 황

표 4. 지리산에서 돌아오는 여정

여행자	기간(일)	여행경로
남효온	1	오대사-여사등촌
조식	3	화개동-악양현-현창-삼가식현-횡포역-두리현-정수역-칠송정-다회탄-뇌룡사
양대박	5	용유담-사담-엄천점로-남원 목동(3)-사기현-팔랑원-황산비전-안신원-귀가
박여량	2	상류암-초령-방곡촌-임천-엄퇴대-뇌계 하루-도천
유몽인	2	화계동-섬진강-와룡정-남원부 남창-숙성령-용담-남원부 관아
성여신	5	신흥사-가정촌-도탄-삼암-평사리-홍룡촌-장변나루-횡포-황현-대야천-옥중-후방-원당-곤명-낙천와-약동령-임천탄-수우당-황류탄-부사정
조위한	2	쌍계사-신홍동-용두정-구례(求禮)-성원-숙성치-남원
양경우	7	신흥사-하외촌사-두치강-광양현-승평부복촌-동북현-화순현-능양현 연주정-남평현-해양서촌-장성현
박장원	3	백무당-안국사-금대암-사근역-운고정-귀가
김도수	18	화개동-삼암-악양-섬진-하동부-횡포역-봉계역-진양성-축석루-함옥현-진남루-안간역-삼가현-한천-함백루-심인촌-귀경촌-야천-가야산-홍류동-해인사(2)-성주 쌍계사-지례현-김천역-김산군-추풍역-중모창-소실촌-관허촌-상현서원-법주사-북천사-문장대-해후대-청천-화양동-가경촌-괴산군-음성현-석원-우산-양지현-용인현-판교-한강-송례문-귀가
이동항	15	용유담-엄천사-함허정-산청현-환아정-단성현-소남촌(2)-덕산-세심정-덕천서원-남사-쌍백정-소남촌-용산점-축석루-지연-도천점-단계-완계서원-단계-개평-단계-삼촌-구평-매산-고암사-허굴산-한천군-여벌점-지령-귀원-안림-대교점-작천(2)-오담-법산-작천-칠령-하산-귀가
김희석	6	광암 주막-마천-오도령-목동-남계서원-개평-송양정-송석정-만귀정-개평-안음-광풍루-월화서당-황산-수승대-요수정-황산-월치-고제 주막-귀가
배성호	2	벽송정-창촌-원정촌-문현동-엄천-지곡-귀가

\* 굵은 글씨는 숙박한 곳이며, 같은 장소에 여러 날을 숙박한 경우 ( )안의 숫자로 표시하였다.

자료: 유산기를 분석하여 필자가 작성

산비전은 고려 말 이성계가 운봉에서 왜구와 전투를 벌여 이긴 것을 기념해 세운 비석이며, 백장사는 지리산 입구에 있는 사찰로 여행자들의 숙박장소로 이용하였다. 한편 진주·산청에서 출발한 여행자들은 산청현 읍치에 있었던 환아정(換鵝亭)을 찾는 사람이 많았고, 조선후기에 들어서면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조식의 유적지인 조식 묘소, 산천재(山川齋), 덕천서원(德川書院), 세심정(洗心亭) 등을 방문하였다.<sup>17)</sup> 경상우도의 유학을 이끈 조식을 흠모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의 묘소나 흔적이 남은 장소를 참배하는 일은 중요한 여정이었다.

대부분의 유산기는 지리산 유람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귀로의 여정을 왕로의 여정에 비해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어 그 분석이 쉽지 않다. 귀로를 기록한 일부 여행자들의 여행경로를 살펴보면(표 4 참조), 대체로 왕로와 같은 경로를 선택하여 비슷한 시간을 들여 귀가하거나, 왕로보다 일정을 단축하여 더 빨리 귀가하였다. 왕로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관동팔경(關東八景) 등 주변의 명승지를 구경하고 오는 금강산 여행자들의 귀로와는 사뭇 달랐다. 왕로보다 귀로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 여행자는 양대박과 김도수였다. 양대박은 이모 방문과 친구를 기다리기 위해 한 곳에 3일을 머물렀고, 김도수는 가야산·속리산·화양동 등을 경유하여 서울까지 올라갔기 때문이다. 귀로 상에 많이 경유하는 장소는 왕로와 유사하다. 성여신·김도수와 같이 화개동을 통해 하동으로 나간 이들은 삽암(鑿岩)을<sup>18)</sup> 찾았는데, 이곳은 고려 말 한유한이 은거했다는 곳으로 그를 추억하기 위해 방문하는 이가 많았다. 조식도 왕로에 이곳에 들러 한유한에 대해 회고한 바 있다.

## 2) 지리산 내에서의 여정

유산기를 분석해 여행자들의 지리산 내의 여정을 정리한 것이 표 5이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리산 내에서의 여정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지리산 최고봉인 천왕봉(天王峰)을 오르는 여정, ② '청학동'이라는 신선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알려진 지리산 남사면의 화개계곡을 방문하는 여정, ③ 이 둘을

접하는 여정, ④ 기타 여정이 그것이다.

22명의 여행자 중에 ①번 유형의 여정을 선택한 여행자는 김종직·양대박·박여량·박장원·유문룡·이동항·박치복·김희석 등 8명이었다. 이 가운데 조선중기까지, 즉 김종직부터 박장원까지의 여행자들은 군자사(君子寺)<sup>19)</sup>·백무동(百巫洞) 등 함양 쪽의 지리산 북사면을 통해 천왕봉을 올랐으며, 조선후기의 유문룡·박치복·김희석은 중산동(中山洞)<sup>20)</sup>·대원사(大源寺) 등 산청 쪽의 지리산 남서사면을 통해 천왕봉을 등정하였다. 이렇게 다른 경로를 선택한 것은 출발지와 관련이 깊어, 함양·남원 거주자는 북사면, 진주 거주자는 남서사면 경로를 주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조선 중기까지의 여행자들이 북사면을 많이 이용한 것은 초기에 천왕봉에 오르고 유산기를 남긴 김종직의 여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①번 유형을 선택한 여행자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리산 최고봉인 천왕봉에 올라 호연지기를 키우고 심신을 수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천왕봉에서 일몰과 일출, 그리고 월출을 구경하는 것을 중요시하였다. 이 밖에 개인에 따라 이 여정을 선택한 이유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김종직은 공무 때문에 화개계곡을 찾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했으며, 양대박은 20여 년 전에 화개계곡을 구경하였기 때문에 이 여정을 선택하였다. 박여량은 1577년과 158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천왕봉에 올랐다. ①번 유형의 여행에 소요되는 기간은 4일 내외였다.

②번 유형의 여정을 선택한 여행자는 조선중기의 조식·성여신·조위한·양경우·김지백, 그리고 조선후기의 김도수·송병선 등 모두 7명이었다. 이 여정은 쌍계사(雙溪寺)를 중심으로 불일암(佛日庵)·칠불암(七佛庵)·신흥사(新興寺)<sup>21)</sup>·의신사(義神寺)<sup>22)</sup> 등 사찰을 비롯하여 불일폭포(佛日瀑布)·세이암(洗耳巖) 등 경승지, 청학동·삼신동(三神洞) 등 신선이 산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장소, 쌍계석문(雙溪石門), 진감선사비(眞鑑禪師碑) 등 최치원과 관련된 유적을 포함하여 화개계곡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명소를 구경하는 경로이다.

이 여정은 지리산의 역사적 자취를 더듬어 보고 싶은 사람들, 특히 최치원을 흠모하는 이들이 많이 선택

표 5. 지리산 내에서의 여정

여행자	기간(일)	여행경로*	유형**
김종직	4	지장사-환희대-선열암-묘정암-지장암-신열암-독녀암-고열암-의탄촌-청이당-영랑점-혜유령-중봉-마암-천왕봉-성모묘-향적암-성모묘-북루-중산-저어원-창불대-신흥사동-영신사	①
남효은	13	용연-부연-금장암-도솔암-회방령-보암-문수암-향적암-천왕봉-성모사-향적암-소년대-계족봉-빈발암-영신암-좌고대-빈발암-영신암-의신암-칠불사-금륜암-청굴-벌초막-반야봉-만복대-벌초막-연령-고모당-보월암-우번대-봉천사(2)-화엄사-봉천사-용연-구례 정정촌-진주 화개동-쌍계사-불일암-보주암-불일암-불지령-목계동-비문령-사자암	③
김일손	9	목계사-좌방사-동상원사-세존암-법계사-천왕봉-천왕사-향적사-금강대-영신사(2)-의신사-신흥사-화개동-쌍계-쌍계사(2)-불일암	③
조식	8	화개동-쌍계석문-쌍계사(3)-불일암-지장암-쌍계사-신응사-칠불계곡-신응사(3)-쌍계사-화개동	②
변사정	6	환희령-정통암-월락동-황혼동-옥련동-영원암-장정동-용유담-두류암-자진동-천왕봉-해진산장-의신사-성사동-신흥사-칠불암-쌍계사	③
양대박	4	군자사-용유담-군자사-의촌-조정동-백문당-곡암-계석당-혈암-천왕봉-계석당-곡암-군자사-용유담	①
박여량	5	금대암-군자사-실덕탄-백무당-우리동-계석당-중봉-천왕봉-성모사-중봉-마암-소년대-행랑굴-상류암-인근암자-상류암	①
유몽인	6	사자항-장정동-실덕리-군자사-의탄촌-원정동-용유담-마적암-두류암-용암-청이당-영랑대-소년대-천왕봉-향적암-사자봉-영신암-의신사-홍류동-사정-기담-신흥사-만월암-여공대-쌍계사-불일암-화개동	③
성여신	4	쌍계사(2)-비로봉-완폭대-불일암-향로봉-고령대-쌍계석문-수흥교-신흥사-녹반암-신흥사	②
조위한	3	화개동-무릉계-석문-쌍계사-불일암-완폭대-옥소암-영대암-불출암-쌍계사-무릉교-신흥동-신흥사	②
양경우	3	화개동-쌍계사-불일암-완폭대-불일암-쌍계사-무릉계-신흥동-삼신동-홍류교-신흥사-하회촌사	②
박장원	3	용유담-엄천창-군자사-백무당-하동바위-계석당-배바위-문암-천왕봉-성모사-계석당-백무당	①
김지백	4	화엄사-연곡사-화개동-쌍계석문-쌍계사-불일암-완폭대-옥소암-쌍계사-무릉교-신흥사터-능파대-세이암-삼신동-칠불암-홍류동	②
정식***	4/7	벽송암엠티-남대암-천왕봉-일월대-숙박지 미상-남대암-공전촌(1차) 쌍계석문-쌍계사-불일암-완폭대-불일암(3)-쌍계사-칠불암-신흥암-세이암-삼신동(2차)	③
김도수	4	화엄사-석주천-연곡-화개동-무릉교-쌍계석문-쌍계사-불일암-국사암-소년암-신흥동-칠불암-벽안당-옥보대-쌍계사-화개동	②
유문룡	3	동당동촌-중산-용추-용굴-향적사 터-천왕봉-일월대-숙박지 미상	①
이동항	4	용유담-송정-금대암-벽송암-당평촌-군자사-명적암-군자사-백무당-하동암-계석당-석문-일월대-천왕봉-계석당-백무당-실백촌-군자사-용유담	①
하익범	8	동당촌-중산촌-석산막-중산촌-가사마전-마전벽-향적사-호구당참-석문-천왕봉-일월대(2)-석문-사자항-세석평원-영신대-벽소령-냉천참-칠불암-삼신동-신흥사-불일암-불일폭포-쌍계사-화개동	③
박치복	3	대원사(2)-유평촌-애전령-개운암-중봉-천왕봉	①
송병선****	미상	화개동-쌍계사-국사암-칠불암-신흥사-삼신동-세이암-단천령-외세석-내세석-연수대-기림동-진장정-시궁대-열좌대-한출리	②
김희석	5	중산동-벽계암-문장대-벽계암-천왕봉-일월대-법주암-벽계암(2)-응봉-용추-중산동	①
배성호	3	용유담-벽송정-당평촌-정장촌-음지촌 침계재-영원암-음지촌 침계재-벽송정	④

\* 굵은 글씨는 숙박한 곳이며, 같은 장소에 여러 날을 숙박한 경우 ( )안의 숫자로 표시하였다.

\*\* 유형은 ① 지리산 최고봉인 천왕봉(天王峰)을 오르기 위한 여정, ② 지리산 남사면의 화개계곡 구경을 중심으로 하는 여정, ③ 천왕봉 등산과 화개계곡 구경을 겸하는 여정, ④ 기타로 구분하였다.

\*\*\* 정식은 2차에 나누어 지리산을 여행하였다.

\*\*\*\* 송병선은 날짜와 숙박장소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다.

자료: 유산기를 분석하여 필자가 작성

하였다. 최치원은 그 학문으로도 존경을 받았지만, 지리산에서 신선이 되었다는 전설 때문에 현실세계의 시름을 잊고 신선세계를 노닐어 보고 싶은 사람들이 그의 발자취를 좇으려 했다. 그리고 화개계곡에 도가의 이상향인 청학동이 있다는 전설도 여행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 여정을 선택한 여행자들의 특징은 이전에 천왕봉을 비롯하여 지리산 북사면을 여행한 이들이 많다는 점이다. 조식·양경우·송병선 등은 이전에 천왕봉을 올랐기 때문에 이 경로를 선택하였다. 양경우는 이에 대해 “1591년 내가 젊었을 때 어른을 모시고 두류의 북쪽 부분을 유람하였는데…군자사를 거쳐 천왕봉에 올랐다.…그 이듬해 남쪽 방면을 유람하려 하였는데 난리가 나서 가지 못했다”고 술회하고 있다. 한편 김지백은 천왕봉에 오르려 했으나 눈이 와 길이 막혀서 뜻을 접어야 했다. 또한 경유지에 있어 쌍계석문, 진감선사비 등 최치원과 관련된 곳은 빠지지 않고 들르는 공통점을 보였다. ②번 여정

을 소화하는 데는 ①번 여정과 마찬가지로 4일 내외가 소요되었다. 조식은 이 여정을 8일 동안 여행하였는데, 비 때문에 쌍계사와 신흥사에 여러 날을 머물렀기 때문이다.

천왕봉 등정과 화개계곡 구경을 겸하는 ③번 여정은 남효온·김일손·변사정·유몽인·정식·하익범 등 6명이 선택하였다. 이 중 남효온·김일손·하익범은 산청 쪽에서 지리산 남서사면을 통해 천왕봉에 올랐다가 내려오면서 화개계곡을 유람하는 경로를 이용하였고, 변사정·유몽인은 함양 쪽에서 북사면으로 천왕봉에 올라갔다가 남쪽으로 내려와 화개계곡을 구경하는 경로를 선택하였다. 정식은 먼저 산청 쪽을 통해 천왕봉을 올랐다가, 8일 간격을 두고 다시 화개계곡 유람에 나섰다.

③번 여정으로 여행을 한 사람들은 정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리산 여행이 처음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지리산의 곳곳을 빠짐없이 여행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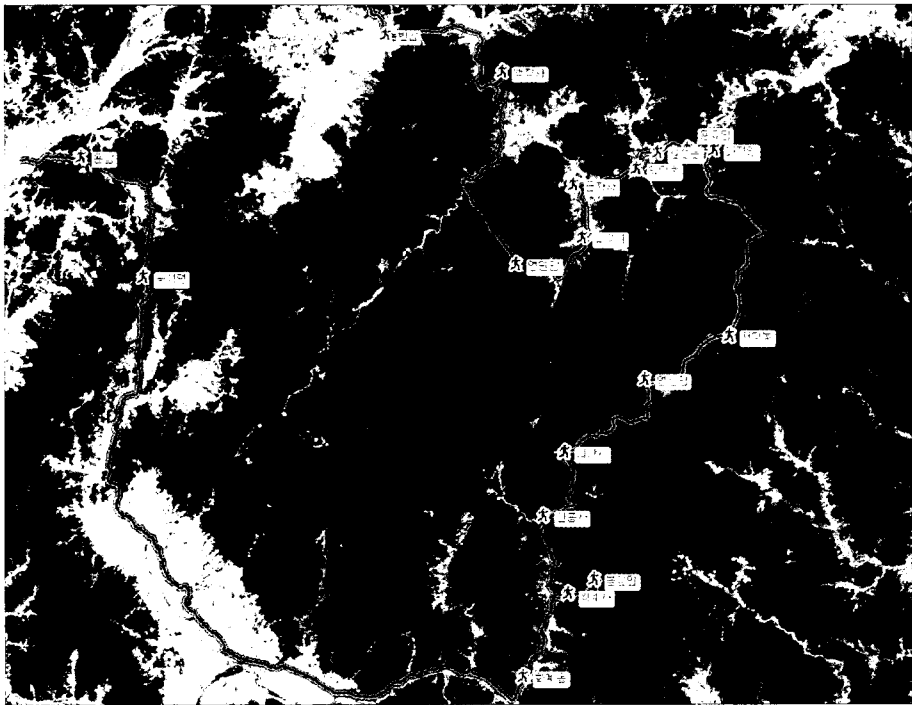


그림 1. 유몽인의 여정(16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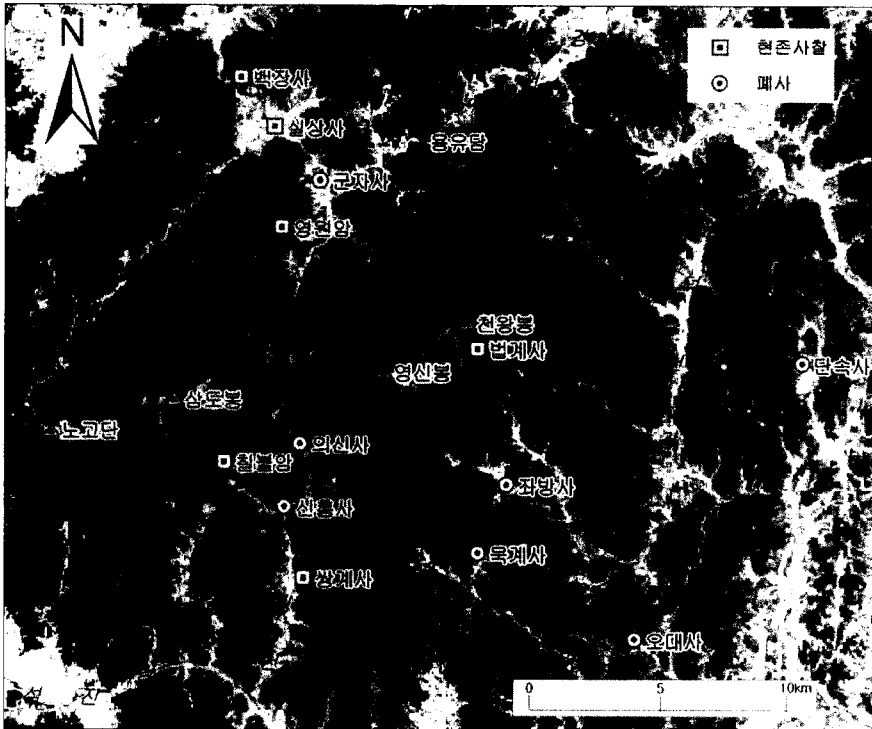


그림 2. 주요 경유지로 이용된 사찰(출처: 정치영, 2003a, 88)

여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③번 여정은 개인에 따라서 짧게는 6일, 길게는 13일이 소요되었는데, '산청-천왕봉-화개' 경로가 '함양-천왕봉-화개' 경로보다 이틀 정도 더 걸렸다.

한편 22명의 여행자들의 지리산 내 경유지는 표 6으로 정리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리산 유람의 거점 역할을 했던 북쪽의 용유담·군자사, 남쪽의 쌍계사·신홍사 등은 전 시기에 걸쳐 여행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다. 특히 군자사·쌍계사·신홍사 등 사찰은 여행자들의 주된 숙소였다. 불일암과 칠불암은 숙소로는 많이 이용되지 않았으나, 불일암은 근처에 정학동이 있는 곳으로 알려졌고, 칠불암은 가락국 왕자들의 전설과 아자방(亞字房)이 유명하여 많은 여행자들이 방문하였다. 사찰 가운데는 영신사(靈神寺)·의신사·묵계사(默溪寺)와 같이 조선중기까지 사람들이 찾다가 조선후기 들어 방문자가 사라진 곳이

있는데, 이들은 어느 시기에 폐찰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일월대·삼신동 등은 그 이전에는 방문자가 없다가 17세기 이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 두 곳은 원래부터 있었던 곳이다. 따라서 유산기 등을 통해, 천왕봉과 인접한 일월대는 일출과 월출을 조망하는 명소로, 그리고 삼신동은 최치원과 관련된 유적으로 차츰 알려지면서 시간이 갈수록 방문객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관광객이 많이 찾는 화엄사와 연곡사는 명성에 비해 조선시대에는 방문자가 많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 위치가 주된 유람경로에서 벗어난 곳에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6. 지리산 내 주요 경유지

경유지	여행자별 경유지(일련번호는 표 2 참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천왕봉	●	●	●		●	●	●	●				●		●		●	●	●	●	●	●	
중봉	●						●												●			
소년대		●					●	●														
영랑대	●							●														
일월대												●		●		●	●	●			●	
완폭대								●	●	●	●		●	●	●							
마암	●						●															
벽소령																		●			●	
영원령					●			●														●
용유담			●		●	●	●	●				●					●					●
불일폭포								●	●	●	●		●	●	●			●			●	
백무당						●	●					●					●					
청이당	●							●														
성모사	●	●	●			●	●	●				●					●	●		●		
홍류동							●		●	●		●	●									
삼신동									●		●	●	●	●			●		●	●	●	
화개동		●		●				●	●	●	●		●	●	●			●		●	●	●
의탄촌	●		●			●		●														
향적사		●	●					●								●		●				
법계사			●																			
영신사	●	●	●		●			●														
신흥사			●	●	●			●	●	●	●		●	●	●		●		●		●	
쌍계사		●	●	●	●			●	●	●	●		●	●	●		●		●	●	●	
칠불암		●			●								●	●	●			●		●	●	●
불일암		●	●	●				●	●	●	●		●	●	●			●		●	●	●
의신사		●	●		●			●														
고열암	●																					
문수암		●															●					
화엄사		●											●		●						●	
연곡사													●									
군자사						●	●	●				●					●					
묵계사		●	●																			

## 5. 지리산 여행의 방식

### 1) 여행 시기 및 여행 준비

지리산을 유람한 22명이 선택한 여행 시기와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한 금강산·청량산 여행자의 그것을 비교한 것이 표 7이다. 청량산·금강산과 마찬가지로, 가을에 지리산을 찾은 사람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봄에 10명이 여행하였다. 청량산·금강산과 달리 지리산을 여름이나 겨울에 여행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월별로는 음력 4월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음력 8월이 6명, 음력 9월이 5명의 순이었다. 정리하면, 늦봄과 초가을이 여행자가 가장 많은 시기라 할 수 있다. 당시 산에 오르려면 숙식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 시기가 이런 문제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기여서 여행시기로 선택한 것으로 믿어진다.

지리산 여행자들은 출발하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였다. 유산기에는 별로 언급이 없지만, 장기간의 여행을 위해서 여행자금을 준비하는 일이 중요하였을 것이다. 김일손은 영남안찰사, 천령군수 등으로부터 노자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선인들이 남긴 유산기를 통해 미리 일정이나 방문할 장소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유몽인은 여행 전에 김종직과 김일손의 유산기를 읽어보았다. 특히 김일손의 『두류기행록(頭流紀行錄)』은 송병선 등 조선 말기 여행자들의 유산기에도 언급되고 있어 지리산 여행안내서로 가장 널리 이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흥미로운 준비과정인 박여량의 『두류산일록(頭流山日錄)』에 실려 있는데, 그는 지리산 유람을 위해 집에서 매일같이

나막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산수 간을 왕래하며 산행 연습을 하였다. 이렇게 신체를 단련한 덕분에 무사히 지리산 유람을 할 수 있었다고 자평하였다.

여행준비물에 대해서는 성여신이 『방장산선유일기(方丈山仙遊日記)』에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그는 타고 다닐 말과 대지팡이·짚신, 여행기록을 하고 시를 지을 종이·벼루·먹 등 문방구, 옷과 이불·베개·방석, 그리고 피리와 시집을 챙겼다. 짚신과 대지팡이는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기 위해 대부분의 여행자가 준비하는 필수품이었다. 이 밖에 이른 봄과 늦가을에 지리산에 오른 여행자 중에는 방한을 위해 두꺼운 털옷이나 가죽옷을 가져간 이가 있었다. 천왕봉에 오를 때는 밥을 직접 지어 먹어야 했으므로, 이동항과 같이 하인들로 하여금 쌀과 엽장, 술항아리, 술과 동이, 밥그릇 등을 지고 올라가게 하였다.

### 2) 여행의 동반자와 교통수단

지리산을 유람한 22명은 모두 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 산행에 나섰다. 친구나 친척 4~5명과 동반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이 때 한 사람 당 한 두 명 정도의 노복이 수행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일반적인 여행단의 규모는 10~20명 내외였다. 그러나 지방수령의 경우, 아전들이 수행하며 악공들이 앞서가고 기생들이 뒤를 따르기 때문에 여행단의 규모는 훨씬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sup>23)</sup> 그리고 지리산 내에서는 대개 각 사찰의 승려가 안내자 역할을 하기 위해 동행하였다.

조선시대 지리산 여행에 이용한 교통수단은 말이었다. 지리산 여행에 나선 사람들은 모두 사대부계층이었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에 말을 이용할 수 있었으며, 말은 왕로와 귀로에 주로 이용하였다. 지리산 내에서

표 7. 지리산·금강산·청량산 여행자의 계절적 분포

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
청량산	5	0	9	3	17
금강산	8	2	10	0	20
지리산	10	0	12	0	22

자료: 지리산은 유산기를 분석해 작성, 청량산은 정치영(2005), 금강산은 정치영(2003b) 참조



는 말이 다닐 수 없는 경사가 급한 길이 많아서 도보로 이동해야 했다. 15~16세기 지리산을 여행했던 김종직·남효온·김일손·양대박 등은 가파른 산길을 지팡이에 의지하여 오르내렸다. 도보에 의한 하루 이동 거리는 김종직이 하루 20리, 남효온이 하루에 짧게는 30리, 길게는 60리를 걸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17세기 이후부터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지리산 내의 교통수단으로 남여(藍輿)가 이용되기 시작한 것이다.<sup>24)</sup> 남여를 탔다고 가장 먼저 기록한 사람은 1610년 지리산을 유람한 박여량이었고, 지리산에서 하산하는 길에 상류암에서 방곡촌까지 승려가 메는 남여를 탔다. 16세기말부터 남여를 사용한 금강산 여행에 비해서는 시기적으로 느린 것이었으나, 18세기 이후부터 남여를 이용한 청량산에 비해서는 빠른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에 따라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조선후기 사대부의 유람에 승려가 메는 남여가 동원된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박여량은 시내를 건널 때 긴장한 현지 주민이나 승려의 등에 업히기도 하였다. 한편 남원부사였던 유몽인은 지리산까지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갔으며, 지리산 내에서는 남여를 탔고, 긴장한 승려를 뽑아 그의 등에 업혀 시내를 건넜다. 남여가 보편적으로 이용된 구간은 쌍계사와 불일암 사이로 쌍계사의 승려들이 남여를 땀다. 성여신은 일행이 쌍계사에서 불일폭포까지 젊은 승려들이 번갈아 메는 4대의 남여를 이용해 이동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산길에서 남여를 메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다. 승려들이 힘들게 남여를 메는 데는 사대부의 도움을 받아 과중한 세금이나 부역을 감면받고자 하는 이유도 있었다.

일부 여행자는 왕로와 귀로에 배를 이용하였다. 예를 들어 조식은 왕로에 사천에서 배를 타고 배 안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바닷길로 곤양을 지나 섬진강을 하구부터 거슬러 올라와 악양에 도착한 뒤 육로를 이용하였다. 성여신은 귀로에 배를 타고 섬진강을 내려갔다.

### 3) 숙박 및 식사

지리산 여행자들이 이용한 숙박 장소는 왕로와 귀로에서와 지리산 안이 달랐다. 왕로와 귀로에서는 민가

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민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친구나 친척 등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집이었다. 여행자들은 대개 친지의 집에서 잠자리는 물론, 식사와 술을 대접받았으며, 친지의 권유로 하루 이상 머무는 경우도 있었다. 여행자가 현직 관료인 경우에는 지방관아를 숙소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현직 장성현감이면서 공무출장을 겸했던 양경우는 여정 상에 있던 남평·보성·순천·광양 등의 관아에서 숙박하였으며, 현직관료인 동생과 동행했던 조위한도 곡성과 구례 관아에 묵었다.<sup>25)</sup> 양대박은 운봉현의 수령이 친척이어서 관아에서 숙박하면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관아에 머무는 경우, 대부분 객사를 이용하였다.

서울과 금강산을 오가면서 '경흥로' 상에 있는 역(驛)을 숙박지로 많이 이용한 금강산 여행자와 비교해, 지리산 여행자들은 역에서 자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 함양으로부터의 왕로에 사근역(沙斤驛)에서<sup>26)</sup> 숙박한 김일손과 박장원, 귀로에 정수역(旌樹驛)에서<sup>27)</sup> 잔 조식, 지리산에서 서울까지의 귀로에 횡포역(橫浦驛)<sup>28)</sup>·김천역(金泉驛)·추풍역(秋豊驛) 등을 이용한 김도수 등 4명만이 역을 이용하였다. 지리산 여행자들이 역을 많이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지리산 주변에 역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들 역도 당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였던 대로(大路) 상에 위치한 것이 아니어서 시설이 그리 좋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조식이 숙박한 정수역은 "겨우 말[斗] 만한 크기의 방 하나 뿐이었다. 허리를 구부리고 방에 들어갔으나 다리를 펼 수 없었고, 벽은 바람을 막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 시설이 열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왕로에 장평 주막에서 숙박한 김희석의 사례를 통해, 조선말기가 되면서 주막이 여행자의 숙박 장소로도 이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행자들은 지리산을 유람하는 동안, 주로 사찰을 숙박 장소로 삼았다.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숙박지로 많이 이용된 사찰은 쌍계사를 비롯해 군자사·신흥사·칠불암·향적암 등이었다. 특히 쌍계사는 전 시대에 걸쳐 가장 많은 여행자가 숙박한 곳이었다. 지리산 내의 숙박지로 사찰 이외에는 성모사(聖母祠)·제석당(帝釋堂) 등 당집과 중산동·장정동 등의 민가가 이용되었다. 이 가운데 천왕봉에 가까운 성모사와 제

석당은 정상을 오르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였다. 여러 사람들의 유산기 기록을 종합해 볼 때, 이 두 곳은 나무로 만든 판잣집이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개축되었다. 한편 산중이라도 노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송병선의 『두류산기(頭流山記)』에 “외세석(外細石)에 도착했는데 이미 날이 저물어 쌀을 씻어 밥을 하고 바위에 의지하여 잠을 잤다”라는 기록이 본 연구에서 다른 22명의 유산기에서 발견한 유일한 노숙기록이다.

여행 중의 식사 역시 왕로와 귀로에서와 지리산 안에서 차이가 있었다. 왕로와 귀로의 식사는 숙박과 마찬가지로 친지의 집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직 관료나 명망이 높은 사대부가 여행을 할 때는 여정 상에 있는 지방수령이나 친지가 음식과 술을 준비하여 보내거나, 경로 상의 적당한 장소에서 연회를 베풀기도 하였다. 그리고 김회석과 배성호와 같이 1900년대 초에 여행한 사람은 주막에서 밥과 술을 사먹었다.

지리산 안에서의 식사는 사찰에서 제공받거나, 동행한 노복이나 승려를 시켜서 직접 밥을 지어 해결하였다. 이를 위해 여행자들은 쌀과 부식, 그리고 기본적인 취사도구를 준비하여 산에 올랐다. 또한 여행자들은 산을 오르내리면서 허기를 달랠 수 있도록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였는데, 떡, 물에 타 먹을 수 있는 쌀가루, 말린 평고기 등과 현지에서 채취한 각종 과일이 대표적이다. 한편 사찰에서는 여행자들에게 식사 외에도 차와 떡, 지리산에서 채취한 홍시·다래 등의 과일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사찰은 여행자의 숙박 및 식사, 그리고 가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그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양대박은 “군자사에 들렀는데 절이 쇠락하였다. 그 이유를 물으니 유람객이 연이어 찾아오고 관행의 부역이 산더미처럼 많아 승려들이 줄어들었다”고 기록하였다.

#### 4) 여행 중의 활동

조선시대에 지리산을 여행한 사람들은 지리산의 웅장한 경치를 감상하고 선인들의 발자취와 문화유적을 탐방하는 것 이외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다. 왕로와 귀로 상에 있는 친지를 방문하는 것은 중요한 활동 중

하나였다. 친지방문은 숙식을 제공받기 위한 것도 있지만, 오랜만에 친지를 만나 술과 음식을 나누며 회포를 풀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왕로와 귀로 뿐 아니라, 지리산 내에서도 용유담 등 경치 좋은 장소에서 연회를 벌이는 사례가 많았다. 연회에는 악공과 기생이 흥을 돋우는 역할을 했으며, 피리·비파·대금·태평소·북·생황 등 다양한 악기가 동원되었다. 여행자들은 이동 중에도 동행한 악공이나 노복에게 악기를 연주하게 했는데, 그 이유는 박여량과 같이 산행의 피로를 잊거나, 김도수와 같이 호랑이 등 짐승을 쫓기 위해서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리산 여행자들은 주로 사찰에서 숙박하였다. 이 때 승려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유교와 불교를 주제로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다. 특히 남효은은 화엄사·봉천사에서 승려들과 『소학(小學)』·『근사록(近思錄)』을 강론하였으며, 정식은 불일암에서 승려들을 따라 사흘 동안 면벽 수도를 하였다. 유람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일은 시를 읊고 짓는 것이었다. 남효은·유몽인 등은 승려와 시를 지어 주고받았으며, 양정우는 지리산 유람을 마칠 동안 27편, 조위환은 무려 102편의 시를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산수 유람에서 관행처럼 행해지던 것 중 하나가 바위나 누정에 제명(題名)하는 것이었다. 금강산의 경우, 만폭동과 같이 방문자가 많은 장소는 글씨를 새길 만한 공간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새겼고, 이를 비판하는 이도 적지 않았다(정치영, 2003b, 31). 지리산은 금강산만큼 제명이 성행하지 않았으나, 김중직이 “제자 유희인으로 하여금 바위에 낀 이끼를 긁어내고 바위 한 복판에 이름을 새기게 하였다”고 『유두류록(遊頭流錄)』에 기록한 것을 비롯해, 박여량이 암자의 벽에 동행한 여행자 8명의 이름을 썼다는 기록이 있다. 조식은 이러한 제명 관행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sup>29)</sup>

한편 천왕봉에 오른 여행자들은 대개 성모사에서 제물을 갖추어 성모(聖母)에게 기도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날씨를 맑게 해주어 일출과 월출을 구경하고 사방을 조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김일손은 어머니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기도를 올리기도 하였다.

## 6. 결론

이 연구는 조선시대 저술된 22편의 지리산 유산기를 자료로, 당시 지리산 여행자들의 성격과 여행 동기, 여정, 그리고 여행 관행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한 사대부들의 금강산·청량산 여행 관행과 비교해, 지리산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리산 여행자는 금강산·청량산 여행자와 마찬가지로 모두 사대부계층이었다. 이들의 연령대, 경력, 사승관계는 다양한 양상을 보였으나, 대부분의 여행자가 지리산 인근지역에 거주하였다는 점, 관직에 관계없이 지조와 절개를 지닌 인물이었다는 점, 산수를 유람하는 취미를 가졌다는 점 등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지리산 여행자들 가운데 인근지역 거주자가 많았던 이유는 당시의 교통사정 등을 고려할 때 지리산으로의 장거리 여행이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지리산 여행의 동기로는 먼저 지리산의 웅장한 모습을 감상하고 심신을 수련하기 위한 것을 들 수 있다. 금강산의 그것과 비교할 때, 특히 산 정상에 올라 호연지기를 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지리산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산재한 선인들의 발자취를 탐방하는 것도 여행 동기가 되었는데, 이상향인 '청학동' 탐색, 최치원·조식 등의 유적 답사가 중요하였다. 유람을 통하여 현실세계의 어려움과 모순을 잊으려는 노력도 여행 동기로 꼽을 수 있다.

지리산 여행자의 여정은 금강산·청량산 여행자의 그것에 비해 개인차가 컸다. 출발지가 다양한 데다 지리산 내의 여행 기점도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출발지에서 지리산까지의 왕로에 비해 지리산에서 돌아가는 귀로의 여정이 거리와 기간 모두 더 짧았다. 이 점은 대체로 귀로가 왕로보다 더 길었던 금강산 여행자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지리산 내의 여정은 크게 ① 지리산 최고봉인 천왕봉(天王峰)을 오르기 위한 여정, ② 청학동(靑鶴洞)이라는 신선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알려진 지리산 남사면의 화개계곡을 방문하는 여정, ③ 이 둘을 겸하는 여정, ④ 기타 여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①번 여정은 심신을 단련하고 호연지기를 키우고자 했던 이들이 주로 선택하였으며, ②번 유형은 지리산의 역사적 자취를 더듬어 보고 싶은 사람들, 특히 최치원을 흠모하는 이들이 많이 선택하였다. ③번 유형은 지리산 여행이 처음인 사람들이 지리산의 곳곳을 빠짐없이 여행하고자 선택하는 사례가 많았다. 지리산 내의 주요 경유지로는 주된 숙박지로 이용된 군자사·쌍계사·신흥사 등 사찰과 최고봉인 천왕봉, 그리고 '청학동' 등의 전설과 관련된 장소와 최치원·조식과 관련된 유적 등이었다.

금강산·청량산 여행과 달리 지리산 여행은 봄과 가을에만 이루어졌고, 특히 가을에 여행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지리산 여행자는 선인들이 남긴 유산기를 이용해 미리 여행 준비를 하였으며, 말과 식량, 취사 도구, 옷과 침구, 문방구 등의 준비물을 챙겨 여행에 나섰다. 여행의 동반자는 친구와 가족이 주를 이루었으며, 악공과 승려가 동반하였다. 왕로와 귀로의 주된 교통수단은 말이었고, 지리산 내에서는 17세기를 전후하여 도보에서 남여로 교통수단의 변화가 생겼다.

왕로와 귀로에서의 숙박 장소로는 친지의 집이 가장 많이 이용되었고, 그 밖에 관아, 역, 그리고 조선 말기에는 주막이 이용되었다. 지리산을 유람하는 동안에는 여행자들이 주로 사찰에서 숙박하였다. 식사 역시 왕로와 귀로에서는 친지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산중에서는 사찰에서 제공받거나 동행한 노복이나 승려를 시켜 밥을 해 먹었다. 또한 이동 중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였다. 여행 중의 활동으로는 친지 방문, 승려와의 토론과 시작(詩作), 제명(題名) 등이 중요하였다.

## 주

- 1) 창작시기 별로는, 15세기의 작품이 5편, 16세기 3편, 17세기 11편, 18세기 10편, 19세기 13편, 20세기의 작품이 13편 남아 있다고 한다(최석기 등, 2000, 385).
- 2) 鄭珉(珉), 1996, 韓國歷代山水遊記聚編 7(경상도편), 민창문화사.
- 3) <http://yusan.culturecontent.com>
- 4) 현재의 경남 산청군 단성·신안·생비랑면 일대에 있던 군

- 현이다.
- 5) 현재의 경남 함양군 안의·서상·서하면과 거창군 마리·위천면 일대에 있던 군현이다.
  - 6) 현재의 경남 함양군 삼가·쌍백·가회·대병면 일대에 있던 군현이다.
  - 7) 1618년 봄 토포사로 장성을 방문한 조찬한(趙贊韓)의 권유로 지리산을 함께 여행하고자 하였으나 관찰사의 허락을 얻지 못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전라도 연해 군현을 속안(續案) 임무로 순회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지리산을 여행하였다.
  - 8) 날씨가 개기를 성모묘(聖母廟)에 기도하는 고유문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9) 공자가 태산에 올라 천하가 작다고 말한 것을 의미한다.
  - 10) 이러한 생각은 이황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산행을 하는 것처럼 독서도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退溪集 卷3, “讀書如遊山”).
  - 11) 청학동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고려후기의 文人인 李仁老의 『破閑集』에 등장하며, 그 모습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그(지리산) 안에 청학동이 있는데 길이 매우 좁아서 사람이 겨우 통행할 만하며, 옆드러서 수 리 좁아지면 넓게 트인 지경에 들어가게 된다. 사방이 모두沃土라 곡식을 뿌려 가꾸기 알맞다. 그런데 오직 푸른 학이 그 안에 서식하는 까닭에 이렇게 청학동이라 부른다. 대개 옛날 俗世를 피한 사람이 살던 곳으로 무너진 담과 구덩이가 아직도 가시덤불 속에 남아 있다.”
  - 12) 경흥로는 조선시대 6대로 중 하나로, 서울에서 경흥까지 가는 길이며, 금강산까지는 양주-포천-영평-철원-김화-금성 등으로 이어진다.
  - 13) 서울에서 금강산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은 경흥로에서 빠져 단발령을 넘어 처음 도착하는 장안사를 금강산 여행의 거점으로 삼았다.
  - 14) 조선시대에 청량산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찰로, 여행자들이 주된 숙박장소로 이용하였다.
  - 15)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에 있다.
  - 16)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에 있다.
  - 17) 조식 묘소와 산천재는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사리에, 덕천서원과 세심정은 시천면 원리에 위치해 있다.
  - 18) 현재의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부근이다.
  - 19) 현재의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군자리에 있던 절이다.
  - 20) 현재의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를 말한다.
  - 21) 현재의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에 있던 절로, 신유사(新凝寺)라고도 불렀다.
  - 22) 현재의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에 있던 절이다.
  - 23) 여행단의 규모가 크고 그 구성원이 다양하였던 사례로 여러 명의 전·현직관료가 동행한 조식의 여행단을 들 수 있

다. “호남에서 온 네 사람과 백유량·이씨 두 유생이 동행하였다. …원우석은 허리가 찬 북을 치고, 천수는 긴 피리를 불고, 두 기생이 그 뒤를 따르면서 선두대열을 이루었다. 나머지 여러 사람은 앞서거나 뒤서거나, 물고기를 꼬챙이에 꿰 것처럼 앞으로 전진하면서 중간대열을 이루었다. 강국년과 요리사 및 음식을 준비하는 종 등 수십 명이 후미대열을 이루었다. 승려 신옥이 앞에서 길을 안내하였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많은 사람이 동행한 것을 알 수 있다.

- 24) 남여는 뒷개가 없는 의자형의 가마로, 조선시대 주로 산길 등 좁은 길을 갈 때 이용되었으며, 앞뒤에서 각각 두 사람씩 모두 네 사람이 어깨에 메는데, 때로는 손으로 들기도 하였다.
- 25) 조위한은 토포사(討捕使)였던 조찬한(趙贊韓)과 동행하였다.
- 26) 현재의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에 있던 역이다.
- 27) 현재의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정수리에 있던 역이다.
- 28) 현재의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에 있던 역이다.
- 29) 조식은 산행 중에서 제명을 발견하고, “찍지 않는 돌에 이름을 새겨 억 만년을 전하러 한다. 대장부의 이름은 마치 푸른 하늘의 해와 같아서 사관(史官)이 책에 기록해 두고 넓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차하게도 원승이와 너구리가 사는 숲 속 덩불의 돌에 이름을 새겨 영원히 찍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하였다.

## 참고문헌

- 강민구·강석화·김대길·김중서·설석규·오수창·이선희·이지양·차미희·최기숙, 2007, 역사, 길을 품다, 글항아리, 서울.
- 강혜선, 1992, “17·8세기 금강산의 문화적 형상화에 대한 연구,” 관악어문연구, 17, 91-111.
- 김동협, 2001, “유학자의 자연이해의 한 局面- 주세붕의 『遊靑涼山錄』과 소위 이황의 『靑涼山歌』에 대하여,” 대동한문화, 15, 125-155.
- 김태준, 2004, “중국내 연행노정고,” 동양학, 35, 43-58.
- 남명학연구원(편), 2006, 남명사상의 재조명, 예문서원, 서울.
- 노혜경, 2002, “顧齋亂藁의 旅行記 分析- 西行日曆을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20, 123-146.
- 우용순, 2001, “산수유기의 전통과 주세붕의 『遊靑涼山

- 錄,” 우리문학연구, 14, 87-105.
- 이동재, 2006, “한국문학과 지리산의 이미지,” 현대문학이론연구, 29, 253-272.
- 이은숙, 1991, “문학지리학 서설-지리학과 문학의 만남,” 문화역사지리, 4, 147-166.
- 이종목, 1997, “遊山の 풍속과 遊記類의 전통,” 고전문학연구, 12, 385-408.
- 이종목, 2001, “退溪學派와 靑涼山,” 정신문화연구, 24(4), 3-31.
- 이혜순·정하영·호승희·김경미, 1996, 조선중기의 유산기문학, 집문당, 서울.
- 정민 (편), 1996, 韓國歷代山水遊記聚編, 민창문화사, 서울.
- 정치영, 2003a, “遊山記”를 통한 본 조선시대 지리산지의 촌락경관 복원,” 문화역사지리, 15(2), 83-96.
- 정치영, 2003b, “金剛山遊山記”를 통해 본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여행관행,” 문화역사지리, 15(3), 17-34.
- 정치영, 2005, “유산기로 본 조선시대 사대부의 청량산 여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1), 54-70.
- 정치영, 2006, 지리산지 농업과 촌락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서울.
- 조동일, 2006, “조식의 시문에 나타난 지리산의 의미,” 남명학연구원총서, 1, 305-318.
- 최강현 (편), 1996, 한국 기행문학 작품 연구, 국학자료원, 서울.
- 최강현, 1992, “금강산 문학에 관한 연구(1),” 성곡논총, 23, 1773-1829.
- 최석기, 2000, “조선중기 사대부들의 지리산유람과 그 성향,” 한국한문학회연구, 26, 91-111.
- 최석기, 2008, “土農窩 河益範의 삶과 문학,” 남명학연구, 25, 153-197.
- 최석기·강정화·이정희·양관석·이영숙, 2000,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돌베개, 서울.
- 홍성욱, 1999, “조선전기 「遊頭流錄」의 지리산 형상화 연구,” 한문학논집, 19, 23-53.
- 홍성욱, 2001, “유몽인의 「頭流記行錄」 연구,” 계명한문학연구, 15, 1-13.
- 感樹齋文集, 朴汝樑, 韓國歷代文集叢書 2215, 景仁文化社 影印本(1997).
- 槐泉先生文集, 柳汝龍, 韓國歷代文集叢書 2578, 景仁文化社 影印本(1998).
- 久堂集, 朴長遠, 韓國文集叢刊 121, 民族文化推進黨 影印本(1998).
- 南冥集, 曹植, 韓國文集叢刊 31, 民族文化推進黨 影印本(1988).
- 滄虛齋集, 金之白, 驪江出版社 影印本(1989).
- 晩醒先生文集, 朴致馥, 韓國歷代文集叢書 1044, 景仁文化社 影印本(1994).
- 明庵集, 鄭弼, 韓國歷代文集叢書 2301, 景仁文化社 影印本(1997).
- 浮查集, 成汝信, 韓國文集叢刊 56, 民族文化推進黨 影印本(1988).
- 士農窩集, 河益範, 韓國歷代文集叢書 876, 景仁文化社 影印本(1993).
- 於子集, 柳夢寅, 韓國文集叢刊 63, 民族文化推進黨 影印本(1988).
- 愚川文集, 金會錫, 韓國歷代文集叢書 1191, 景仁文化社 影印本(1994).
- 佔畢齋集, 金宗直, 韓國文集叢刊 12, 民族文化推進黨 影印本(1988).
- 靑溪集, 梁大樸, 韓國文集叢刊 53, 民族文化推進黨 影印本(1988).
- 秋江集, 南孝溫, 韓國文集叢刊 16, 民族文化推進黨 影印本(1988).
- 春洲遺稿, 金道洙, 韓國文集叢刊 219, 民族文化推進黨 影印本(1998).
- 濯纓集, 金駟孫, 韓國文集叢刊 17, 民族文化推進黨 影印本(1988).
- 玄谷集, 趙緯韓, 韓國文集叢刊 73, 民族文化推進黨 影印本(1988).
- 岩鼻通明, 1987, “道中記にみる出羽三山參詣の旅,” 歴史地理學 139, 1-14.
- 小野寺淳, 1990, “道中日記にみる伊勢參宮ルートの變遷-關東地方からの場合,” 人文地理學研究, 14, 231-255.
- 田中智彦, 1987, “愛宕越えと東國の巡礼者-西國巡礼路の復元,” 人文地理, 39-6, 66-79.
- 田中智彦, 1988, “大坂廻りと東國の巡礼者-西國巡礼路の復元,” 歴史地理學, 142, 1-16.
- 福田珠己, 1991, “場所の経験: 林芙美子「放浪記」を中心として,” 人文地理, 43-3, 69-81.
- Duncan, J. and Gregory, D., 1999, *Writes of Passage: Reading Travel Writing*, Routledge, London.
- Foster, J., 2005, Northward, upward: stories of train travel, and the journey towards white South

African nationhood, 1895-1950,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31, 296-315.

Guelke, L. and Guelke, J. K., 2004, Imperial eyes on South Africa: reassessing travel narratives,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30, 11-31.

Hulme, P. and Youngs, T.(eds.), 2002, *The Cambridge Companion to Travel Writing*, Cambridge Univ. Press, Cambridge.

교신: 정치영, 463-79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고개길 110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문화예술학부(이메일:

cyjung38@aks.ac.kr, 전화: 031-709-6676)

Correspondence: Chi-Young Jung, Department of Culture & Arts,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110 Haogogae-gil,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463-791, Korea (e-mail: cyjung38@aks.ac.kr, phone: +82-31-709-6676)

최초투고일 09. 05. 04

수정일 09. 05. 19

최종접수일 09. 05. 22